학교 주관 공동구매 효과…교복값 싸졌다

광주지역 중·고교 올해부터 조달청서 일괄 구매

평균 16만7863원으로 개별구입보다 38.9% 저렴

교복을 입는 광주지역 모든 중·고등학교는 올해부터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일괄 구매한다. 그동안 학부모들이 개별 또는 공동 구매했던 것을 학교장이 조달청 나라장터 경쟁입찰을 통해 교복업체를 선정한 뒤 일괄 공급받는 방식이다. 이는 교복값의 거품을 없애고, 브랜드 차이에서 오는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은 겨울교복을 학교주관구매로 할 경우 개별구매보다는 38.9%, 공동구매보다 7.3%의 가격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교복 공급업자 선정을 마친 광주지역 중·고교 27개교의 2015학년도 겨울교복 학교주관구매 평균 낙찰가는 16만7863원이다. 바지·스커트, 자켓, 조끼, 셔츠·블라우스 등 동복 한 벌(4종류) 기준 가격이다.

이는 지난해 개별구매 평균가(27만5250원) 대비 39%(10만7387원), 공동구매 평균가(18만1470원) 대비 7.5%(1만3607원) 가격이 낮아졌다.

광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교복값의 거품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남(27만7667원)에 이어 전국에서 두번째로 교복값이 높았고, 전국 평균 25만6925원보다 1만8325원 웃돌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은 국·공립학교에만 의무화한 학교주관구매제를 사립학교에까지 확대했다. 광주가 유일하다. 이는 학교주관구매제가 교복 가격을 안정시키고 가계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이고, 효과도 확실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 제도는 학교장이 직접 입찰과정에 참여해 학교회계로 처리하는 데다 학부모도 연말정산을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광주는 동일학군으로 교육청의 배정에 의해 진학하게 된다. 교육환경에서 공·사립의 차이가 없다"며 "교복 학교주관구매는 가격 거품을 없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한 만큼 공·사립 구분없이 모든 학교에 의무화했다"고 밝혔다.

'교복 물려주기' 사업도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복물려주기 사업 수요조사 결과, 올해 92개교에서 6995명의 학생이 교복·체육복 1만6696점을 기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부교육지원청이 35개교 5181점, 서부교육지원청이 57개교 1만1615점으로, 지난해보다 33% 증가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당 최대 86만원을 지원해 기증한 교복을 세탁·수선을 거쳐 학교별로 2~3월 '후배사랑 교복나눔' 행사를 열 계획이다.

임희섭 서부교육청 학부모지원팀장은 "교복 물려주기는 선·후배간 정을 나누고 기부문화를 확산하며, 물자 절약·환경보전 교육 등 효과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난해 진흥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교복 물려주기' 행사에서 신입생들이 자신의 몸에 맞는 교복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 서부교육지원청 제공〉

광주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광주전남권역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대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 지역경제 활력

10개사 지원…올 상반기 8개사 추가 지정 목표

광주대학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이 성과를 내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고 있다.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종)는 지난해 사회적기업 2곳의 지정 절차를 마친데 이어 올해 상반기 8개사 지정을 목표로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광주대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관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광주전남권역 위탁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대는 학교 인성관 3층에 창업 공간과 상담실을 마련하고, 전문 멘토단을 구성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0개사를 지원했으며, 현재 2개사의 지정 절차를 마쳤다.

'전남형 예비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2개사는 사회적기업 제품 매장 순방과 농·어촌체험마을 여행 등 남도 테마 체험 여행을 진행하는 '(주)순천힐링체험투어'(대표 이혜숙)와 자연염색제품과 누비패션용품 등을 생산·판매하는 '순천친환경섬유협동조합'(대표 김미경) 등이다.

나머지 8개사는 올해 상반기 중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주식회사 푸른뜰'(대표 방은진)은 쌈채소·고구마·여주·토마토 등 제철 농수산물과 표고버섯·굴비 등 가공식품을 온라인(greenery.co.kr) 판매한다. '위드쌤'(대표 이정훈)은 체육학과 재학생들이 의기투합해 설립한 초·중학교 방과후학교 스포츠 서비스 기업이며, '(주)늘푸른에프에스'(대표 김재홍)는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에 푸드뱅크를 제공하는 종합식자재 유통전문회사다.

이들 업체는 활발한 영업활동으로 매출을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밝게 하고 있다.

이상면 광주대 사회적기업사업단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젊은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해 성공하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들이 조기에 안정적인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가을학기제 도입 비용 8조~10조원 추산"

교육개발원 연구 보고…교원증원·학급증설 비용 최소화 과제

초·중·고등학교에서 9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를 도입할 경우,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필요한 비용이 8조~1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2일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9월 신학년제 실행 방안'은 9월 학기제로 전환하는 모형 6가지를 제시하고 특정연도의 신입생 증가에 따른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에 들어갈 비용을 이같이 추산했다.

우선 초등학교의 2018학년도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는 모형은 2017학년도에 신입생이 두 배로 늘면서 2028년까지 12년간 초·중·고등학교에서 모두 10조430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교원 증원은 초등학교가 2017~2022학년에 매년 2만2712명(4980억원), 중학교가 2023~2025학년에 매년 2만6651명(5597억원), 고등학교가 2026~2028학년도에 매년 2만6499명(5565억원)이 필요하다. 교원 증원의 인건비 합계는 6조3366억원(30만1722명)이다.

학급 증설은 2017학년도에 초등학교 1만5703개, 2023학년도에 중학교 1만3460개, 2026학년도에 고등학교 1만1777개로 모두 4조940억원(4만940학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7학년도 9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학생은 47만1097명으로 계산됐다. 교원 증원 비용은 1명당 연봉액이 2100만원, 학급 증설 비용은 1개당 1억원으로 각각 설정됐다.

2018학년도 초등학교 3월 입학을 6개월 앞당기고 신입생을 7회에 걸쳐 매년 16.6~18.5% 수준으로 분산 수용하면 교원 증원과 학급 증설의 부담이 줄어든다.

이 모형은 2017학년도부터 9월부터 6년간 초등학교 신입생의 입학기준일을 14개월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교원 증원에 6조2677억원, 학급 증설에 2조8380억원 등 모두 9조1057억원의 비용이 나온다.

이 보고서는 가을학기제 도입에 따른 인적·물적 비용이 상당한 규모일 것임을 보여준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공론화 작업을 거쳐 가을학기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어서 비용을 최소화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

고소득층 36만8743원 vs 저소득층 2만2156원

사교육비 16.6배 차이…1년 새 격차 더 벌어져

고소득층은 사교육비를 저소득층보다 16.6배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통계청의 2014년 3분기 가계동향지수 중 소비 지출 항목의 '학생 학원 교육비'(사교육비 추정 항목)를 분석한 결과, 월소득 10분위(고소득층) 가구는 월평균 36만8743원을 학원비로 지출했다. 반면 소득 1분위(저소득층)는 2만2156원을 지출해 고소득층이 16.6배 더 쓴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13년 3분기 고소득층의 학원비 지출이 저소득층의 10.1배 수준이었는데,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고소득층의 학원비 지출은 2013년 37만1600원에서 0.8%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만6600원에서 무려 39% 감소했다. 전체 가구당 학원비 지출은 2013년 18만2900원에서 17만9000원으로 3900원(2.2%) 감소했는데, 저소득층의 사교육비 격감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단체는 교육부에 "소득계층 간 사교육비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 격차 해소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분석 대상을 사교육 참여 가구로 한정하고 ▲시·도별, 학교급(초·중·고교)별 사교육비 통계를 따로 내고 ▲가계동향지수 발표 시점을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통계청은 8700여가구 대상으로 분기별로 가계동향지수를 조사하며, 학부모 4만여명 대상의 '사교육비·의식 조사' 결과를 연 1회(2월) 발표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월산동 지하 1층 지상 4층 상가주택 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73-11, 19번지
(월산동 운진각 4거리 운진각 모텔 뒷편)

■ 대지 128평 건물 208평
지하 - 51평, 상가 및 사무실
1층 - 41평 상가 및 사무실
2층 - 46평, 상가 및 사무실
3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4층 - 35평, 주택(방3 화2 거1 입식)

■ 시세 및 감정가 7억 5천만원

■ 매매가 6억 5천만원
(융 3억8천만원, 보 1억에 월세 350만원 가능)

■ 엘리베이터, 주차장, 텃밭, 도시가스, 전체 올 수리

■ 주인 직매 H. 010-3605-5000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광천파크 빌라 304호, 34평
■ 2013년 준공,
5층 중 3층 정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6500만원
■ 즉시 입주가, 내부 깨끗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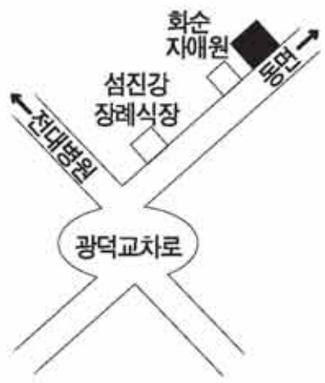
빌라 매매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749-13
다음 빌리지 301호, 32평
■ 정남향, 즉시 입주 가능
■ 현재 전 4500만원 임대 중
■ 매매가 5500만원

문의 H. 010-3605-5000

전남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전원 주택지



■ 광덕 교차로에서 3분거리
■ 328평, 33필지 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2015년 5월 완공 예정
■ 매매가 1억 3120만원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 H. 010-3605-5000